

불행한 시국을 만나 불행한 조국을 위해 일생을 몸바친 한 가족의 님이 고이 잠들어 있으니
이가 곧 영인면 월선리에 소재하고 있는 오충비 곧 충국 순의비이다. 일성군의 후손 생원
박순호씨의 장녀로 1853년 10월 16일 출생하시어 16세때 통정대부 정3품 화순군수 이도희
씨의 부인으로 출가하신 숙부인 박안라 여사 품성이 어지시고 사리가 깊으시며 문학과 가사
에 뛰어나신 박안라 여사는 두아들 규풍과 규갑을 충의의 길로 양육하셨으며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한편 자신의 생활은 검소하여 안락을 꾀하지 아니하였다. 국운이 쇠퇴하여 일
인의 압력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됨에 나라의 위기가 극에 달함을 통분히 여겨 척화토적의 상
소를 손수지어 올리시고 아들 규풍 규갑에게 명하여 대의를 잡아 의병을 일으키도록 하셨
다. 3년후 어느날의 일이었다. 어머니를 뵈고자 불원천리 달려온 아들 규풍을 보고는 반갑
고 고마운 마음을 접어두고 근엄한 얼굴로 이르시기를 "대장부가 어찌 사사로운 정에 이끌
리어 대의를 망치려 하는가? 나라가 흥망의 고비에 처했거늘 이 무슨 망동이더냐 !" 하고
크게 꾸짖으시며 문밖에서 돌려 보낸 일도 있었다.

그리고 몸소 국내외로 다니시며 구국운동을 계속하시다가 1922년 5월 29일 그토록 그리
시던 독립을 보시지 못한채 일인의 포악한 행동의 소리없는 피해자로서 조국에서 까마득히
머나먼 아라사에서 숨을 거두셨다. 1877년 11월 2일 서울 묵동에서 화순군수 이도희씨와
박안라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나신 이규풍장군 비범한 재질과 호탕한 기질 대의에 관하여 웅
직이지 못할 굳센 기강을 지니신 그분은 17세에 갑술과에 급제하시어 나라일에 봉직하시다
가 을사조약이 불법으로 체결되어 국권이 상실되니 황제의 밀조를 받들어 개연히 일어서 권
유상, 이교수 등과 아라사로 가서 이범윤, 초재형등과 군사를 일으켜 대장으로 추대 되신후
좌장군 안중근, 우장군 강민국과 군사를 영솔하고 함경북도 육진에서 일병을 크게 무찌르니
이 소식을 들으신 광무 황제께서는 특명을 내리시어 창의 대장을 제수하셨다. 또한 1910년
아라사에서 만인 공동회를 조직하여 일제의 간악 무도한 침략을 세계에 호소하시고 한편으
로는 울납간에서 독립군을 양성하셨다. 3.1운동 후에는 중국 만주에서 고려 혁명당을 조직
하여 활동하실 때에 국내외로 파견한 동지들이 일경에게 학살 체포된 비보를 접하시고는 울
분을 금치 못해 졸연 피를 토하시고 순국하시니 때는 1931년 6월 1일 이었다. 1963년 3월
1일 건국포상을 받으셨다.

해주 후인 부사 오태근의 장녀 오세라 여사는 이규풍 장군의 부인으로 부군이 한 평생을
집을 떠나 구국운동에 몸바치시자 뒤에 남아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봉양하시었고
1919년 3.1운동 후에는 시베리아로 가서 부군을 내조하시다가 부군이 순국하시자 아들 이
민호를 데리고 중국 북경에서 계속 항일 투쟁을 하시다가 1939년 3월 9일 중국 북경에서
순국하셨다. 평소엔 창밖으로 무심히 내다보던 길옆의 충국 순의비에 발을 멈추었다. 우렁
찬 호령 소리와 근엄하신 꾸짖으심은 간 곳 없이 작은 비만이 옛일을 이야기 해주고 있었지
만 난 그곳에서 가신님들의 말씀을 듣는다. 조국 통일의 염원을